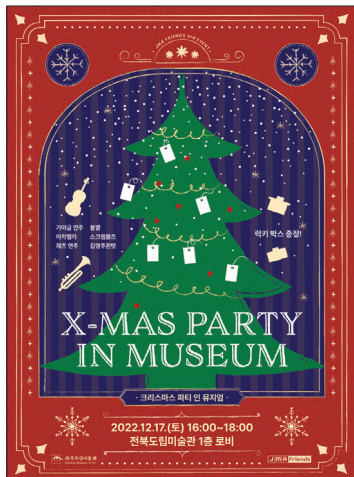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파티 인 뮤지엄'

전북도립미술관, 17일 공연·위시 카드 이벤트·크리스마스 기념품 제공 등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연말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4시~6시까지 JMA Friends 3rd Event '크리스마스 파티 인 뮤지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미술관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을 적는 '위시 카드' 이벤트가 진행된다. 평소 사랑하는 사람과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재밌고 다양한 소원을 작성해 위시 트리를 장식하고 미술관 SNS에 인증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JMA Friends Even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기존 프렌즈 회원은 가입 확인만 하면 된다. 처음 방문자도 당일 미술관 2층 프렌즈존에서 가입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마친 관람객에게는 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팔찌와 크리스마스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공연은 봄날의 파스란 햇볕처럼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퓨전국악팀 '봄날'의 가야금 연주, 재즈 보컬 청년들로 이뤄진 '스트랩블즈'의 아가펠라, 서정적이며 크리스마스에 가장 어울리는 재즈 연주팀 '김영주 퀸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JMA Friends 회원들에게 제공한 프렌즈 팔찌를 선물주머니와 교환할 수 있으며, 선물주머니 속에는 보너스 포인트가 적힌 프렌즈 포인트 카드도 함께 들어 있다. 프렌즈 포인트 카드 수령 후 카드 뒷면에 개인정보와 함께 프렌즈존에 제출하면 추가 적립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nbukmuseum)과 JMA FRIENDS 공식 SNS(jma_friends), 페이스북(jma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북도립미술관 교육문화팀(063-290-6866)으로 하면 된다.



전북도립미술관 '크리스마스 파티 인 뮤지엄' 행사 포스터

/장은성 기자

폐자재 활용 새활용 놀잇감 만들기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 '놀이집',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통놀이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10일 2회차에 걸쳐 '똑딱똑딱 새활용 놀이'를 전당 1층 '놀이집'에서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6~7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똑딱똑딱 새활용 놀이'는 가족이 한 팀을 이뤄 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차 별로 6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했다. '똑딱똑딱 새활용 놀이'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 삼평뚜껑 팽이 만들기, 삼각형 딱지 만들기, 삼각형 딱지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놀잇감을 만드는 체험형 놀이행사로, 만들어진 놀잇감은 팽이대결, 손제기차기 등의 놀이로 활용됐다.

회차별로 10시, 13시 30분에 시작해 90분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됐다. 김도영 원장은 "폐자재를 활용한 새활용 놀잇감 만들기로 탄소중립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접하기 어려운 전통놀이를 일반에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놀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놀이집'이 전용 체험공간인 '놀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체험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 현장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음악과 정혜연 교수, 피아노 독주회 '교감交感'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정혜연 교수가 피아노 독주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 '교감交感'을 주제로 한 이 연주회는 14일 저녁 7시30분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연주될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49번, 드뷔시의 '영상 2번', '기쁨의 섬', 바흐의 칸타타, 사르느 D단조 등이다. 피아니스트 정혜연은 서울대학교 기악과 졸업 후,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피아노 전공)와 Artist Diploma(피아노와 반주과 북수전공)를,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Teaching Assistant로 정액 장학금을 받으며, 박사학위(피아노 연주와 문헌 전공)와 석사학위(피아노 교수법 전공)를 취득했다. 클리블랜드 음악원 졸업 시 최고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Dr. Joseph and Bess Scharff Prize, William Kurzban Prize, Rosa Lobe Collaborative Award를 수상하였고, 구겐하임 선정 작곡가 Stephen Taylor의 공상과학 오페라 《Paradise Lost》의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며 Nancy Kennedy Memorial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정혜연 교수는 일리노이 음대,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한세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및 각종 콩쿠르의 심사위원, 국립군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음악과 조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혜연 피아노 독주회 '교감交感'은 12월 겨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어울리는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군산=김광근 기자

'예술이꽃피우다' 정기 기획공연 개최

익산시 예술 단체 예술이꽃피우다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익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 정기 기획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예술이꽃피우다는 청년예술가들이 자체 창작 국악 가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악과 양악의 플라보 퓨전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관계자는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과 자라나는

예술 인재들이 함께 무대를 꾸밈으로써 세대가 예술로 화합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영리단체 예술이꽃피우다는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자체 창작 국악가요와 국악·양악 플라보 공연으로 지역의 국악 예술을 선도하고 있다. 예술이꽃피우다는 지난 6월 신곡발표기획공연 '너는꽃이되어'와 제3회 '낭만소리페스티벌'을, 10월에 '국악X오케스트라'의 따뜻한 위로,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성료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5612명 관람 · 종합평가 높은 점수 받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2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전했다. '몽연'은 춘향(2013~2016년), 심청(2017년), 흥도(2018~2020년)를 이은 네 번째 레퍼토리로, 삼국시대 백제 서동(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동서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지역의 대표적 브랜드 공연작품이다. 판소리·무용·디지털 무대기술(조명, 영상, 음향)을 융합해 2021년부터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작품 구성, 무대세트, 음악 등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실감음향 시스템(35.1채널)을 구축해 전달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극 중 '귀랑'이라는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 극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몽연'은 6월 3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25일 폐막까지 26주 동안 72회 운영했다. 관람 인원은 전년 대비 8% 상승한 58.1%의 객석점유율로, 5,612명이 공연장을 찾았다. 여기에 전북관광 활성화와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 반딧불축제, 익산서동축제, 울산문화축전을 연계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

라북도 대표 브랜드공연으로서 인지도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어, '몽연'의 종합평가는 92.8점(100점 만점)으로 올해 목표 90점을 달성했다. 전문가(70%)와 관객(30%) 평가로 진행, 전문가 평가에서 93.4점의 높은 결과를 받았으며, 관객 평가에서도 91.6점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무대 장치와 조명, 영상, 음향의 효과 및 조화를 높게 평가했다. 무대의 비주얼적인 부분과 장면을 구성하는 무대 장치의 싱크로율이 눈에 쫓겨 집중도가 올라간 점, 실감음향 시스템(35.1채널)을 구축해 중저음 및 잔향이 들리는 정화감이 높아져 관람할 때 전달력이 좋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야기의 연결 구조와 설득력, 개연성 등에서는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끝으로, 2023년 '몽연'은 새만금세계캠버리,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등 전라북도 메가이벤트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입과, 코로나19에 위축됐던 문화 예술 공연 시장의 회복에 따른 관객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내부 부서와 연계 강화, 전주한옥마을을 프로모션, 지역 소상공인 제휴, 관광전문기관 및 마케팅 전문가 협업 등을 확대하고,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코로나 회복세와 지역에서 메가 이벤트가 내년에 열리는 만큼 관광객 유입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브랜드공연을 통해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후의 명곡 소울콘체르토 완주 공연

서희태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완주군을 찾는다. 12일 완주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케스트라 '불후의 명곡 소울 콘체르토'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서희태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클린카 서곡 투슬란과 루드밀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을 들려준다. 이중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연주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소화해 내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선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하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원재연 피아니스트와 협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유능한 교향악단원들이 함께 연주하며 완주군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